

SNK, LGU+ '지포스나우' 서비스에 대표 IP 게임 선보

- 국내 통신사 중 가장 많은 게임 콘텐츠 보유한 LGU+와 손잡아
- 해외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에 이어 가장 다양한 종류의 SNK 게임 국내 최초 제공
- SNK “당사의 게임을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선보이게 돼 기대 커”



SNK인터랙티브(대표 전세환)가 LG유플러스의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지포스나우'에 당사의 대표 게임 5종 이상을 공급하기로 계약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서비스 계약에 따라 지포스나우 가입자들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SNK의 대표 인기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계약으로 LG유플러스는 SNK의 대표 게임이자 국내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 가장 친근한 'THE KING OF FIGHTERS XIV'와 'SNK 40주년 기념 에디션', 'THE KING OF FIGHTERS '98 ULTIMATE MATCH FINAL EDITION', 'SAMURAI SHODOWN V', 'METAL SLUG X' 5종을 먼저 제공하고, 이후 매월 새로운 게임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앞서 해외의 경우, SNK는 이미 아마존 프라임, 텐센트 스타트 등과 같은 해외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를 통해 자사의 게임을 제공한 바 있다. 금번 LG유플러스와의 지포스나우 게임 공급은 전세계 지포스나우 서비스 최초로 국내 LG유플러스 가입자들에게만 서비스된다.

SNK인터랙티브 관계자는 “국내 통신사 중 가장 먼저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시작한 LG유플러스를 통해 당사의 다양한 게임들을 다시 선보일 수 있게 돼 기대가 크다”며 “이제는 콘솔뿐 아니라 모바일과 IPTV 등 다양한 기기로 게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SNK 게임을 콘솔, PC로만 즐겼거나, 평소 관심이 있어도 마땅한 기기가 없어 즐기지 못했던 유저들에게 더욱 친근하고 편리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엔비디아의 지포스나우 국내 단독 파트너사로서 작년 9월부터 세계 최초 5G 기반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국내에서는 현재 약 300여종의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끝>

<자료 문의>

SNK인터랙티브 홍보담당 전성국 대리 (010-5477-0979 / skchun@snkcorp.co.kr)

SNK인터랙티브 홍보담당 이은수 사원 (010-4491-7537 / eslee@snkcorp.co.kr)

<SNK 인터랙티브 소개>

SNK는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둔 게임회사로 일찍이 전 세계에 수많은 게임을 제공하여 세계적으로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국내에서는 올 상반기 증시에서 화제를 모은 공모기업 중 하나로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아랑전설' '메탈슬러그' '사무라이 스피리츠(사무라이 쇼다운)' 등 1990년대를 풍미한 인기 게임의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흥행한 IP들 외에도 콘솔과 모바일 게임을 지속해서 개발 및 판매하며 성장 동력으로 앞세우고 있으며, 신규 IP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